

“선배의 고교 생활 옛볼 수 있어 좋아요”



거주
경기 하남시
망월동



자녀
대1, 중3



구독 기간
7개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작년에 첫째가 고3, 둘째가 중2였습니다. 두 아이가 적용받는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가 달랐고, 둘째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염두에 두고 있어 학교 활동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이 많았어요. 마침 지인이 <내일교육>을 추천해줬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구독하게 됐습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첫째는 정시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생각보다 자기만의 탐구 활동을 꾸려가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중3인 둘째를 위해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두고 있어요.

매주 <내일교육>이 오면 전체적으로 훑어본 뒤,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따로 모아 아이와 함께 읽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가 있어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둘째가 고1이 되는 내년에는 더 깊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둘째는 물리와 화학을 좋아해 반도체공학과나 의대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과목 선택과 탐구 활동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수능 과목 고를 때 과탐 선택자가 너무 줄어 결국 1과목을 사탐으로 변경했거든요. 지금 보니 소신껏 과탐을 끌고 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둘째는 분위기보다 소신껏 희망 전공 관련 과목을 학교 수업이나 수능에서 선

택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최근 학생부 교과전형과 정시에서도 서류 평가가 확대됐는데, 대학이 앞으로 과목 이수 이력과 탐구 활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볼지 궁금합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결국 학생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라 부모가 도와주긴 어려워요. 그나마 학교생활만큼은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싶지만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에 나온 다른 학생의 활동 사례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가끔 활동의 세부 과정이 궁금할 때가 있어 아쉬워요. 어떤 계기로 탐구 주제를 정했고, 자료는 어디에서 찾았으며, 어떤 고민을 거쳐 결과물을 완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

Reporter's A/S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행평가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주제 선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나치게 어렵거나 거창하기만 한 주제는 오히려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해요. 주제 선정이나 자료 탐색이 막막하다면, <내일교육>이 추천하는 사이트들을 참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지 1199호
'공학 계열 지망생에게 강추
탐구 활동 활용 사이트 10'
기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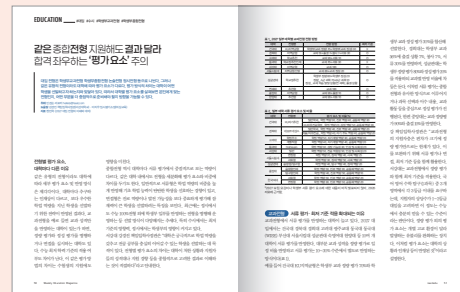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2/13호

2026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02 서울대 의과대학 1학년 정현수(경기 용인홍천교) 안전한 선택보다 한계에 도전 난치병 치료 꿈꿨기 때문이죠

“<내일교육>의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는 학생들이 고교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돼요. 관심 있는 학과의 학생들이 나오면 활동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12/25호

같은 종합전형 지원해도 결과 달라 합격 좌우하는 '평가 요소' 주의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에 따라 평가 요소와 반영 비율이 다르다니, 입시가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8 대입을 앞두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대학이 학생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지 알기 쉽게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